

EGHT 이재수

ICT 융합정책네트워킹포럼 조찬모임

일시: 2015.06.09.

## 1. 이석우 NIST

- 미국정부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
- NIST는 연방정부 소속으로 CPS 분야로 자신이 스카우트되어 참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음
- CPS의 특징은 Co-designed, Co-engineer 가 중시됨
- IoT는 센서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이며  
CPS는 그 데이터를 피드백시켜서 서비스나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
- Measureable Impacts of CPS
  - 1) Fueling Job Creation
  - 2)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
  - 3) Improving the economy
  - 4) Saving Lives
- 미국은 위의 네가지 중 하나는 해결하도록 해보자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, 100여개 업체가 24개 팀으로 참가하여 추진하고 있다.
- 자율주행자동차, 송수관 관리 등등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
- 현재 Global City teams challenge 를 진행하고 있으며,  
Team을 만드는 데에는 지방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만 참가가능하다.
- Smart Cities 전략  
모델을 만드는 데 "replicable, scalable, sustainable"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.  
전세계 도시의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표준모델을 만들어 범용적으로 만들자.
- 6월 1일 GCTC Expo에서 25개팀이 모두 모여서 격려하고 1차 종료되는 것으로 행사진행

EGHT 이재수

- GCTC 2016은 기존 유럽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.

## 2. 토론

-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영동 부장

현재 자동차 에어백을 만들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고위험도가 낮아져서 에어백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, 인더스트리 4.0을 보면서 차세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.

현재 생산공정은 90%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IoT와의 연계를 통한 제조라인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.

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의 R&D 지원이 필요하다.

- 신강근 미시간대 교수

CPS의 개념이 서로간에 차이가 많은,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.

현재까지 기계파트가 제작하고 난 뒤에 ICT가 붙어서 완성시키는 형태라면, CPS는 그 둘간의 협력을 통해 동시에 제작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.

미국에서는 CPS에 대해 45M-dollars씩 지원하며 7년간 추진해왔다.

대개 대학에 대한 지원이었으나, 그 외 업체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.

CPS를 Domain Target을 정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.

- 이석우 NIST

IoT와 CPS의 차이점과 관점에 대한 논의는 한국과 같이 미국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.

2015년 NIST에서 관여하는 펀드는 IoT와 Smart City에 주력하고 있다

- 미래부 유성완 과장

IoT 관련 미래부 R&D 자금이 2015년 800억 규모이다.

CPS는 올해초부터 정부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며, 오늘 이석우, 신강근교수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CPS에 대해 다시금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.

EGHT 이재수

- 이석우 NIST

Business 관점에서 IoT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.

IoT로 수익을 낸 업체의 모델을 다른 곳에서 따라하는 것은 Case-by-case 상황이라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,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조율(튜닝)이 필요하다고 본다.